

미래시대 주역 '청년 창업가' 육성

전주시, 취업·창업 역량 강화 두괄견어 'Start-up 토크콘서트' 전주대 공동 개최

전주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전주지역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서문산성, 이하 진흥원)은 8일 전주대 J아트홀 일대에서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와 공동으로 청년 창업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Start-up 전북 2017 청년 취·창업 토크콘서트'

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일자리 창출과 창업 벤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4차 산업의 기술트렌드를 소개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창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4차 산업 청년 취·창업'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이성호 디스트릭스홀딩스 대표의 '가상현실, 현실

이 되다', 청청한식밥집을 창업한 김민영 소녀방앗간 대표의 '청년창업을 준비하는 청춘의 마음가짐'의 스타트업 강이 펼쳐졌다. 또한, 전주대 창업동아리 학생들의 시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플라마켓과 4차산업 체험부스(VR, 드론, 3D프린팅 등), 취업 및 창업상담, 로봇과 인간을 주제로 한 LED퍼포먼스 특별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이와 함께, 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K-ICT 디바이스랩과 스마트 창작터 사업 홍보,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입주기업 제품전시 등도 마련됐다. 서문산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과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등이 최신 기술 트렌드와 제품을 체험하고 선배 창업가의 성공에 대한 열정을 느끼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본 행사를 마련했다"며 "향후 여러 분야의 성공 창업가로 성장하고 관련 산업 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가 8일 전주용덕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 자전거안전운전면허증 발급

전주시, 용덕초교 학생 21명 시험 합격

전주용덕초등학교 학생 21명이 자전거 안전수칙과 교통법규를 잘 지켜 전주시가 발급하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됐다. 전주시는 8일 전주용덕초등학교에서 3~6학년생 21명을 대상으로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전하는 어린이들에게 면허증을 발급하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면허시험'을 실시했다.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면허시험은 교통법규와 안전수칙 등 자전거 이론교육을 이수한 어린이들이 △출발과 정지 △직진, S자 코스 △횡단보도, 자전거횡단보도 건너기 등으로 구성된 코스를 수행하는 실기평가에서 합격점 이상을 얻은 어린이에게 발급된다. 이날 시험에 참여한 용덕초 학생들은 상반기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통해 이론과 자전거 타기 실습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교육 후 코스 수행평가에 어려움 없이 참여 어린이 21명 전원인 안

전운전면허시험에 합격했다. 시험에 합격해 면허증을 받게 된 한 어린이는 "지난번에 받았던 교육 내용이 생각나고, 실습했던 자전거 타기를 실기코스로 돌아보니 긴장은 되었지만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참여소감을 밝혔다. 박광원 전주용덕초등학교 교장은 "아이들에게 자전거 이용습관을 길러주고자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면허시험도 신청하게 됐다"라며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자전거에 대해 올바르게 안전하게 타는 법을 배우게 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아이들이 자전거 타는 올바른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전거 안전운전면허시험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일선학교에서 자전거 안전교육과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면허시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근 기자

전북대 1단계 합격자 발표

2018년도 학생부종합전형 23일 2단계 면접 평가 진행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는 8일 2018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하고 2단계 면접전형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북대는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 5,489명 중 지원 자격 부적격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자들의 1단계 서류평가 결과 2,589의 합격자를 냈다. 1단계 합격자는 오는 23일 2단계 면접을 거쳐 내달 15일 최종 합격자를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면접은 1단계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목) 하루 동안 오전 조와 오후 조로 나누어 진행된다. 이를 위한 조 편성 및 자세한 내용은 오

는 17(금)일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대는 2018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2단계 면접을 앞두고 면접평가 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전북대는 2017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2단계 면접평가에 참여하는 교수 위촉임용사정관 등 면접위원 및 면접진행위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15일부터 16일까지 면접의 공정성, 전문성, 신뢰성 등에 관한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대 입학본부 입학전형실이 주관하게 될 이번 워크숍은 학생부종합전형의 전체 진행과정과 면접평가 진행방법, 면접평가 기법, 유의사항, 면접을 통한 대학의 이미지 제고 방안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정해은 기자

'리소좀'으로 절화장미 노화 늦춘다

전북대 허미영씨 효과 검증 한국생물공학회 우수연구상



전북대학교 허미영 대학원생(분자생물공학연구실 석사과정·사진)이 최근 부산에서 열린 한국생물공학회 추계 학술발표대회 및 국제심포지엄에서 우수 발표상을 수상했다. 허 대학원생은 이번 학회에서 세포 소기관인 리소좀을 활용해 절화장미의 노화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검증한 연구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전북대 분자생물공학연구실은 절화 장미뿐만 아니라 절화 프리지아,

절화 백합 등에서도 리소좀을 활용해 그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친환경적 절화 선도 유지제의 소재로서 응용 가능한 난백 추출물의 유용 가능성 검증 및 활용 기술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책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정해은 기자



군산대학교 프라임사업단 정신개조팀이 '2017 KIPS 추계 학부생 논문 경진대회'에 참가해 장려상을 수상한 가운데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군산대 프라임사업단 '정신개조팀' KIPS 학부생 논문 경진대회 장려상

군산대학교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프라임)사업에 참여하는 크로스-프로젝트 9개 팀이 최근 한국정보처리학회(KIPS)가 개최한 "2017 KIPS 추계 학부생 논문경진대회"에 참가해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 경진대회는 관련 분야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학회인 KIPS가 주최하는 "제48회 KIPS 추계학술대회 및 학부생 논문경진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군산대학교 참가팀 중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 3학년 최진우 학생이 이끄는 정신개조팀(지도교수: 정동원, 공동저자: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 김범석(4), 전지예(3), 신동호(3))은 "비콘과 QR코드를 이용한 스마트 도어락 시스템 설계 및 구현"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참가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군산대학교 프라임사업단은 학제간 융합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크로스 옵티머스를 통해 학생들이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시작품을 제작, 발표까지 수행하는 크로스-컨버전스 팀을 운영하고 있다. 우수팀을 중심으로 자기주도형 융합교육 심화과정을 수행하고 경진대회 수상을 목표로 하는 크로스-프로젝트팀을 지원하고 있다. 정동원 교수는 "이번 논문경진대회를 통해 프라임사업과 크로스-프로젝트팀의 중간성적을 파악했고, 무엇보다 이번 발표에서 최진우 학생 팀은 물론 나머지 팀의 논문 발표도 세션 좌장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학교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14살 소녀들

여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
행복은 교육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윤서, 박민지)은 호주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인연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